

영적원리 XXV.

내 시간이 멈추어야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입니다.

1. 일상과 특별함

(1) 특별함과 일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 **일상** - 하나님의 시간개념 속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상이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상이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 **특별함** - 특별함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한다. 말 그대로 특별한 때이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때이다. 그 특별함은 '일상'이 모여 완성된 순간이다. 정점의 순간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상'의 성격은 '의미있는 시간들의 축적'이며, 특별함의 순간은 '의미있는 시간들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다. 일상과 특별한 순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전체의 시간속에서 연결된 고리와 같다.

(2) 연결과 분리

하나님의 시간은 통합적이지만 세상의 시간은 '분리적'이다. 통합적이라는 것은 전체가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것이다. 전체의 그림이 선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는 '부분'은 명확하지만, 전체를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전체의 그림을 모른다. 통합적 시간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실패와 고통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전체 그림에서 볼 때 실패, 고통, 그리고 어려운 시간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3) 기다림

분리적 시간(인간의 시간, 땅의 시간)은 전체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없다. 해석할 수 없다. 여유가 없다. 항상 쫓긴다. 멈춤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멈추게 되면 불안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멈춤' 자체가 고통이다. 멈추었을 때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1:4-5]

4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다. 내 시간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다. 이 때 느끼는 힘은 내 시간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강과 안정감과 역동성이 있다. 쫓기는 불안함이 없다. 미래의 때를 향한 불안한 마음도 없다.

죄인된 인간의 특징은 바로 '분리'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존재적인 불안함이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하다. 아버지의 품에 있어본 적이 없기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

2. 세상의 시간이 주는 함정

(1) 특별함을 강조 (세상풍조)

일상을 무시한다. 특별한 존재만 인정받는 세상풍조, 강자, 생존경쟁에서 이긴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약자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2) 치유받지 못한 상처

모든 시간개념이 분리되어 있다. 좋은 시간만을 받아들하려고 한다. 반면, 고통의 시간은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 과거가 없는 미래이다. 역사성의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3) 힘쓸림

힘쓸려 간다. 진정한 '나'를 발견할 시간이 없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쫓김의 연속이다. 가기는 가는데 향방을 잃은 전진을 힘쓸림이라 한다. 대중의 힘이 법이되는 세상이다. 객체가 존중되지 않는 대중은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없기에 항상 대중의 눈치를 본다. 무리 밖으로 이탈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4) 과정을 무시한 한탕주의, 이벤트적 삶

[요한일서 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여주는 세계가 중요한 세상이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과정은 무의미하다. 결과만 중요하다. (질서, 윤리, 가치의 파괴)

3. 일상에서 열심히 양을 치다 보면 사무엘이 나타난다.

(1) 일상과 특별함

[사무엘상 16:11]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 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 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 놀라운 순간이다.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무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의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에서 양을 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찾아내셨다.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되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다. 일상에 전념하라. 사무엘이 나타난다. 불평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다. 인간의 눈에, 인간의 욕망에, 자신을 비추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출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2) 준비하는 일상

준비하는 일상이 되어라. 계산하지 않는 준비를 하라.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제물과 같은 준비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사용하신다. 광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준비하라. 준비하면 반드시 때가 온다.

[사무엘상 16:16-19]

16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이 나오실 것입니다."

17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18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19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 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